



## 쇠고기 값 자유화할 방침

—李農수산부장관, 대통령 연두순시에서 보고—

농수산부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쇠고기를 지나치게 소비하고있음에 비추어 이러한 지나친 소비를 억제하고 돼지고기나 닭고기로 바뀌도록 현행 쇠고기의 행정지도 가격을 풀어 쇠고기값을 시장에 맡겨 자유화할 방침이다.

李載堧農수산부장관은 지난 1월25일 崔圭夏 대통령의 농수산부 연두순시에서 보고한 내용중 축산 정책에 관해 우리나라에서는 외국과 비교하여 쇠고기를 지나치게 선호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쇠고기의 행정지도 가격을 풀어 쇠고기의 과도한 소비를 억제하고 돼지고기나 닭고기로 바뀌 소비토록하고, 돼지나

닭에 대해 관측업무를 강화하여 적정마리수를 유지 함으로써 값을 안정시킬 예정이다.

또한 농수산물 가격정책에 관해 가격 안정제도를 단력적으로 운용해 나가기 위해 안정대의 상하한폭에 품목별 정상진폭을 반영토록하고 대상품목도 안정조치가 가능한 품목으로 줄이며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 4백18억원을 확대조성, 효과적으로 운영하며, 서울지역에 15만6천평 규모의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건설을 적극추진하고 전국권 유통기본계획에 관한 용역을 추진하고 이에따라 유통체계를 수립토록 한다. 또한 농수협에 설치된 농어민여론 처리대책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여론을 신속히 파악하여 시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李장관은 주곡의 증산에 대해 신품종보급, 비료의 안정적공급과 농약의 자율적인 구매에 관해 언급하고 양곡수급계획과 원예작물의 생산과 농업생산기반조성과 농업기제화에 관해 대단위 종합개발사업과 경지 정리사업, 임야개발사업, 서남해안간척지개발사업, 경운기 방제기등의 공급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



농수산부는 앞으로 돼지고기 소비를 억제하고 닭고기에 대한 관측업무를 강화하여 농수산물 가격을 안정시킬 예정이다.

## 農水産자금 金利조정

### —단기영농자금 15~18%로 올려—

농수산부는 1·12금리인 상조치에 따라 단기영농자금을 비롯, 농가소득지원, 농업기 계화 촉진, 농어촌부업, 농산물유통가공, 연 근해 어업등 각종 중장기 농수산 자금에 대한 대출금리를 인상조정키로 하고 구체적인 이 율조정작업에 착수했다.

농수산부에 따르면 이는 1.21금리인상조치 로 정책금융대출금리가 15%에서 21%로 올 랐고 식량및 농어민득증대, 수산물증양식, 연 근해 어업등을 지원하기위한 국민투자기금의 용자금리가 12~13%에서 18~19%로, 대하금 리는 10.5~11.5%에서 16.5~17.5%로 각 각 올랐으며 재정자금금리도 곧 인상조정될 예 정이어서 대출재원을 대부분 재정및 금융자 금에 의존하고 있는 이들 농수산 관계자금의 금리인상이 불가피 하기때문이다.

이에따라 농수산부는 당초 단기영농자금 금리를 연15%에서 12%로 낮추어 올해부터 적용키로 했던 방침을 전면 백지화, 15~18 %로 인상키로하는 한편 12.5%로 되어있는 농특사업, 농업기반조정, 새마을종합 개발등 농업개발자금을 18.5% 올리고 최저 3.5 %에서 최고20.5%까지로 되어있던 각종 중장 기 농수산 관계자금의 대출금리를 현행보다 6%포인트내외에서 인상조정키로 했다.

한편 농수산부는 농가 교역조건 악화로 농 민이 빼앗길 소득 보전책의 일환으로 농약原 資材를 비롯 농기계부품·밀·옥수수등 곡물 수입관세의 인하조정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1.21환율조정이 농업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한으로 줄이기위한 대책을 관계 부처와 협의중인것으로 알려졌다.

## 대한여자수의사회 창립

### —회장에 김대은박사선출—

여수의사들의 학술발전과 친목, 사회적 지위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 대한여자수의 사회 (Korean ladies Veterinary Society)가 지난 1 월 26일 여수의사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대한 수의사회 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대한 수의사회 정관 제29조규정에 의해 설 립된 동회는 정회원은 수의학을 전공하여 수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 개인찬조회원은 수 의사와 결혼한 부인으로 동회취지에 찬동하는 자, 단체찬조회원은 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단체의 회원규정을 두고있다. 이날 회순에 의거 진행된 임원선출에는 김대은(수의학 박사)씨가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80년도 사업 계획심의회가 있은뒤 폐회되었다.

## 식품업계 환차손(換差損) 많아 경영난가중

— 시설투자 외자의존도 높아 —

시설투자비의 외자의존도가 높은 식품가공업계는 1.12환율인상조치로 환리스크부담 가중으로 경영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시설증설은 물론 포장기등 기자재를 대체한 종합식품업체 대부분이 차관등 외자에 의존했을뿐 아니라 아울러 신구공장건설 내지는 증설을 추진해온 업체들이 환율인상에 따른 환차손이 클뿐 아니라 시설투자비 부담 가중으로 경영전략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인 것

으로 알려졌다.

식품업계가운데 특히 유가공업계의 경우, 한국낙농을 비롯, 후발메이커인 롯데 축산등이 젖소도입을 거의 차관자금에 의존했기 때문에 환리스크 부담이 크게 늘어났으며 이밖에 삼양식품이 건설중인 유가공장과 남양유업의 공주 유가공장 건설 기자재의 상당부분이 외자에 의존하고 있어 1.12환율인상에 따른 여파가 전체식품가공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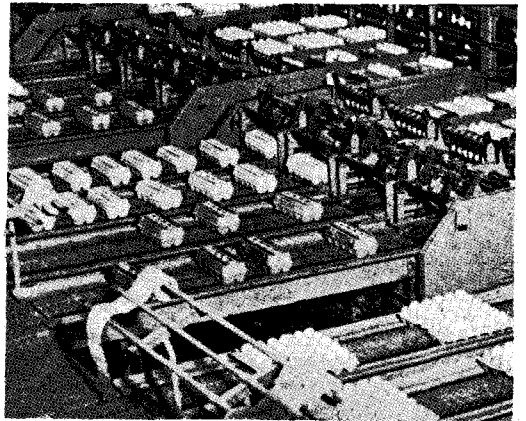
## 대만, 포장계란 판매 개시

— 위생처리된 계란을 먹게되 —

지난달 대만국립대에서 양계업계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계란세척, 등급분류및 위생적인 포장에 관한 시범이 있었다.

금번 시범은 대만의 사료및 穀物開發公司(FGDF)가 후원한바 FGDF는 洗卵器, 등급분류기및 包裝機를 3 조씩 수입했다. FGDF는 또 이들 수입기구를 채란양계업계에 넘겨주어 이들로 하여금 연말까지 40만줄(한줄10개)을 처리포장하도록하고 계란10개가 든 플라스틱 포장단위당29원씩의 보조금을 지불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대만의 계란소비자들은 작년 12월부터 위생적으로 처리된 계란을 먹게 되었다는 소식이다.



△ 대만에서는 위생적인 플라스틱 포장으로 작년 12월부터 위생적으로 처리된 계란을 먹게 되었다.

## 올해 축산물 45만 5천톤 공급

### — 돼지고기, 닭고기 소비 유도 위해 수입지양 —

농수산부는 올해 축산물 수급계획량을 45만 4천t으로 책정하고 가능한한 쇠고기 등 육류 수입을 지양, 국내증산으로 수요량을 충당하기로 했다.

농수산부가 확정된 80년도 축산물 수급계획에 따르면, 경기불황으로 인해 소비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 수요량을 작년보다 2만

5천t 정도를 늘려 45만 5천t으로 책정했으며 소·돼지·닭 등의 국내증식으로 가능한 육류를 수입하지 않을 방침이며 부족분은 이미 지난해 수입하여 비축해둔 쇠고기 6만 6천두분, 돼지고기 18만두분(일부 국내 수배분포함)을 적절히 방출하여 충당할 방침이다.

## 한국낙농협회 정기총회 개최

### — 낙농진흥대책위원회 구성 건의문 채택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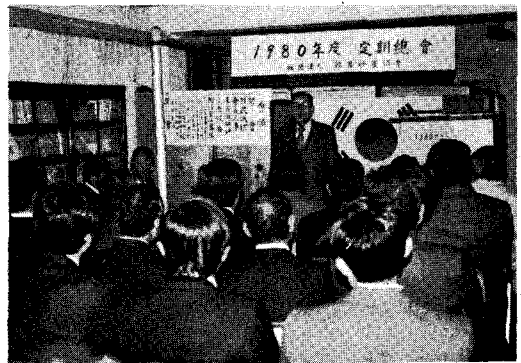
한국낙농협회(회장: 전휴상)는 '79년도 정기총회를 협회임원 및 전국지회장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월 29일 오전 축산회관 2층 당협회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전휴상회장의 갑작스런 입원으로 김운형부회장이 대신 진행한 이날 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김부회장은 한국의 축산업은 날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낙농가 여러분은 합심단결하여 어려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자고 발표하였다.

이어서 농수산부 축산국 지설하국장은 격려사를 통해 사료가인상에 언급 옥수수가격의 상승과 환율의 인상, 기타유류가 등의 인상에 따라 불가피한 조치라 발표하고 주문배합사료, 펠렛사료, 발효사료등을 생산함으로써 점차 사료가격 자유화를 유도하며 사료원료 도입을 민간업체로 이양하는 등 사료공장의 경쟁화를 통해 양축가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원유가인상에 언급 신중을 기해 인상조치를

취할 것이며, 낙농가는 농후사료를 적게먹이고 자급사료 이용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한편 젖소능력향상등 생산비를 절감하는 방안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총회는 격렬한 토의 끝에 △원유가 인상, △집유선동결조치 해제 △유당및 카제인 수입규제 △학교우유급식등의 건의문을 채택하고 이의 관철을 위한 8명으로 구성된 낙농진흥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폐회하였다.



## 미국, 1979 농산물수출 320억불 —농업무역흑자 158불 달성—

USDA는 작년 9월30일자로 끝난 1979회계년도 미국의 농산물 수출액이 320억불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1978년도의 273억불보다 17% 즉 47억불이 늘어난 수준이다.

한편 1979년도 미국의 농산물 수입 총액은 1978년의 139억불보다 16% 즉 23억불이 많은 162억불에 불과해 농산물 교역분야에서 미국경제전체에 기여한 무역흑자가 158억불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농산물 교역흑자는 최근 6년동안 계속 100억불 이상을 유지해 왔으며 1979년에 또다시 새로운 기록을 세우게 되었다.

농산물 총수출액중 곡류사료 및사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42.5%로서 136억불에 달했으며 유지(油脂)작물의 경우는 27.8%인 87억이었다. 그런데이들은 전년보다 각각 19억 및 12억불의 증가를 보였다.

이들 물량면에서 살펴보면 1979년도사료곡물 수출량은 1978년보다 400만톤이 증가한 5,950만톤이었으며 대두와 대두제품 수출량은 120만톤이 많은 2,730만톤이었다. 그러나 1979년도 소맥과 소맥분의 수출량은 1978년보다 약60만톤이 감소된 3,220만톤에 그쳤다.

미국의 농산물 수출량 1977-1980

(단위: 100만톤)

	1977	1978	1979	1980 ★
소 맥	23,766	31,813	31,340	37,000
소 맥 분	957	1,021	877	1,000
사 료 곡 물	50,602	55,545	59,499	71,100
미 곡	2,319	2,276	2,397	2,700
기 타 곡 류	690	775	861	1,000
사 료	3,990	3,603	4,304	4,000
대 두	15,156	19,686	20,194	22,500
대 두 박	4,117	5,516	5,996	6,400
기 타 박 류	147	324	294	300
대 두 유	702	933	1,059	960
기타식물성유	449	541	460	500
해바라기씨	403	906	1,342	2,700
면 화	1,042	1,378	1,395	1,400
연 초	290	272	287	300
과 체 류	3,219	2,904	2,807	3,100
수 육 류	349	340	326	300
가 금 육	194	194	208	200
수 지	1,379	1,281	1,276	1,100
기 타	2,095	2,562	2,574	2,500
계	111,866	131,870	137,496	159,000

★추정(소련에 대한 곡물수출금지 조치의 영향이 고려되지 않음)

## 한일농원, 일본에 아바에이카 종계 수출

### —동남아지역 종계수출 전망밝아—

한일농원(대표: 차두홍)은 세계적으로 인기상승중에 있는 아바에이카 육용종계를 일본에 수출하여 국내 종계과잉생산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게되었다.

지난 1월11일 1차적으로 4천 6백수의 종계를 수출한데 이어 태국등에서 받은 오다를 위시하여 앞으로 동남아 지역의 종계수출 전망은 밝은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식량정책에 농민 푸대접

### —가치배분에 불리한입장—

우리나라의 식량정책은 그 결정과정에서 생산자인 농민이 참여하지 못하는데다「즉흥적이고 권위주의적」이어서 농민은 언제나 가치배분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여온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동서 교수와 미국 아이오아 대학교 길영환교수가 공동으로 지난 63년부터 79년까지 우리 나라의 식량정책을 연구, 발표한 「식량정책의 결정과 구체화」라는 논문에 따르면 농민의 단체인 농협이 자율성이없고 전혀 정책결정에 참여치 못하여 쌀값의 결정, 농지기반조성에 대한 투자, 농약, 비료가의 결정등에서 농민들의 이

익을 옹호하지 못했을뿐만 아니라 농수산부 또한 경제기획원·상공부·재무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해 생산자인 농민만 푸대접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박교수팀은 식량정책을 결정하는데「생산자인 농민의 참여가 이뤄지지못해 언제나 불리하게 가치배분을 받아왔다」고 지적하면서「행정인들이 주도권을 장악, 결정의 일관성이 적고, 즉흥적, 권위 주의적이며 상관의 관심을 갖는 문제해결에만 집착하게돼 무력한 농민의 이익을 희생시켜왔다」고 주장, 그예로 혼식장려, 쌀막걸리 제조, 쌀의 수입, 노풍 장려등을 들었다.

## 농협사료공장 시설 대폭 개·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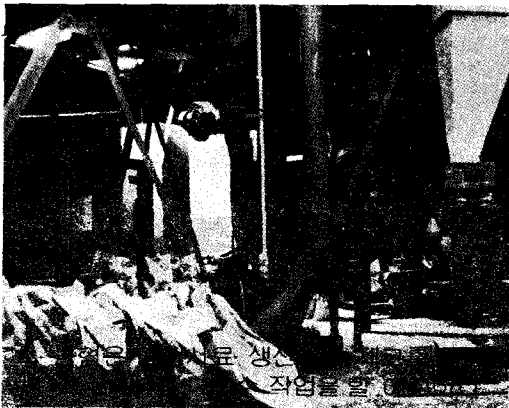
### —생산능력일산 7백20톤으로—

농협중앙회는 양축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배합사료 생산능력을 현재의 日産 3백톤에서 7백20톤으로 끌어올리기로 하고 관내특수

조합사료공장을 대폭 개·보수하기로 했다.

농협에 따르면 오는83년까지 34억 8천 1백만원의 차관및 자체자금을 투입, 현재 건설 중인 전북 군산공장을 완공하는 동시에 6개 특,수조합산하 사료공장시설을 개·보수, 일산 3백톤(仁川·釜山공장 각 1백50톤) 능력을 7백20톤으로 높여 양축농가에 양질의 배합사료를 시중보다10~20%싼 값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농협중앙회는 사료의 검사기능을 대폭강화하여 일반사료메이커 제품까지도 인천공장에서 일괄검사 합격품에 한해 양축농가에 사료를 공급할 방침이다.



## 농축산물 7천억원 계통출하

—농협, 소비지 판매처리기능 강화—

농협중앙회는 올해 총 7천억원어치의 농축산물을 계통출하하기로 하고 산지출하체제를 정비하고 소비지 판매처리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협에 의하면 계통출하물량은 곡류 1천 2백억원, 과채류 2천 1백억원, 축산물 1천 8백억원 기타 1천 9백억원등 총 7천억원어치로 이를 위해 주산지별로 청과출하반 5천개 미곡출하반 2천 2백개등 공동출하반 7천 2, 백개와 산지판매장 1천 6백95개소를 확충, 공동출하체제를 확립시킬 방침이다.

한편 농협은 대도시에 채소판매장 12개소 공판장 4개소를 신·개축, 판매처리 기능을

강화하고 농산물 표준규격을 작년 보다 10개 품을 늘린 30개품목으로 확대하고 공동상표 1천만매와 골판지적자, P. P 대 1천 4백50만매를 공급, 상품성 제고에 힘쓰며 유통정보망을 확충하여 가격동향을 신속히 전달해 주기로 했다.

각도별 계통출하물량은 다음과 같다 (단위

▲경기= 940	▲강원= 474	=억원)
▲충북= 411	▲충남= 731	
▲전북= 657	▲전남= 1,063	
▲경북= 1,046	▲경남= 860	
▲제주= 319	▲서울= 32	
▲부산= 11	▲중앙회= 456	

## 돼지값 이상 상승

—한달새 2 배로 경증—

돼지값이 파동 6개월만에 이상현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의 우성·協進등 3개 도축장의 15일 현재 돼지고기 枝肉 경락가격은 1천 2백89원으로 한달새에 2 배로 뛰어올랐다. 또 연초까지만해도 90kg짜리 생돈 한마리에 3만원대까지 떨어졌던것이 6만 5천원까지 갑자기 치솟는 바람에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정육점에서는 돼지고기 한근에 1천 1백원으로 뛰었고 그나마 곳에 따라서는 제대로 살수조차 없는 상황으로 변했다.

이에 따라 농수산부는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을 전국적으로 근당 2백원씩 인상, 서울 부산을 비롯한 11개 도청소재지와 인천·마산 등 15개시에서는 현행근당 8백원씩(비계없는것)팔던것을 1천원에, 기타시군지역에서는

비계를 뺀것은 7백원에서 9백원, 비계있는것은 6백원에서 8백원으로 上向 조정키로 했다.

불과 한달전만해도 계속 떨어지지만 하던 돼지값이 이처럼 오르는것은 그동안 정부의 소비촉진책과 가격폭락으로 소비가 늘어產地의 成豚이 크게 줄었고 또 產地돼지값의 하락이 멈추자 값이 오를것에 기대, 양돈농가나 기업양돈가들이 출하를 기피하고 있기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있다.

한편 정육관계자들은 생돈및 돼지고기 값이 오르고있는데 대해 회복이나, 일시적 현상이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앞으로 구성수가 끼어 크게 폭등하거나 떨어질것 같지는 않을것으로 보인다.

## 한국종축개량협회 총회 성료

### — 등록검정사업 유공자 표창도 —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황영구)는 '79년도 정기총회를 정부당국자와 대의원 36명등이 참석한 가운데 1월29일 오전 축산회관 3층 당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날 개회사에서 황영구회장은 회원을 위한 회원의 협회가 되도록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회원의 협조와 임직원의 혼연일체로 보dana은 협회로 발전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농수산부 축산국 지설하국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난해 계속된 축산불황등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생산활동을 영위한 양축가에게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양축가와 정부의 꾸준한 대화와 접촉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갈 것을 당부했다.

총회는 이어서 협회의 등록및 검정에 유공한 양축가와 유가공업체에 감사패와 표창장을 수여하고 부의안전심의를 마친후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등 선진 외국의 축산업에 관한 Slide를 관람후 폐회하였다.

이날 표창자는 아래와 같다.

- 감사패 김 현(농수산부 대가축계장)
- 이진희(종축개량협회 전문위원)
- 표 창 임영식(롯데축산이사)
- 박연우(삼양유지사료)
- 대창덕(예수원목장)
- 섬기열(대한전선 상무)

## 호텔용 고급농축산물등 수입금지 방침

### — 농수산부, 국내생산물로 대체 —

농수산부는 가능한한 농축수산물의 수입을 억제한다는 방침에 따라 관광호텔에서 도입 소비하고 있는 각종 고급농축산물의 도입을 일체 금지시킬 방침이다.

농수산부에 의하면 국내 일류관광호텔에서 관광객에게 제공한다는 농축산물이 송아지고기, 칠면조, 양고기, 파파야, 망고, 무과화, 코코넛, 포도, 바나나, 후추, 천연꿀, 청정채소, 버터, 치즈등 연간 5백80만달러에 이르

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이들의 수입을 전면금지 이룰 국산고기나 과일 채소로 대체토록 할 예정이다.

농수산부는 이같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외국농산물의 도입이 국내 외환사정을 더욱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기때문에 이의 수입금지 방침을 세웠다고 당국자는 전했다.



## 농협축산물 직매장 적자운영

### —수입쇠고기 공급물량 적어—

농협축산물직매장에서도 한우를 판매 할수 있도록해달라는 진정이 서울시에 계속 밀려 들고 있다.

서울시당국 진정서에 따르면 축산물직매장을 경영하는 업주들은 수입쇠고기의 물량공급이 줄어들어 적자를 보고있기때문에 이를 타개 하기위해 일반정육점과 같이 한우고기도 팔 수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진정이 쇠도해 이같은 진정내용을 농수산부에 보고했다는 것이

다.

시당국자는 축산물직매장이 축산물가격안정 등에 크게 공헌한것은 사실이나 농수산부의 별도지시가 없는한 일반정육점판매허가는 불가능하다고밝히고 축산물직매장계약을 해약 하면 시설기준을 검토한후 일반정육점허가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내에는 동단위로 3~4개 축산물직매장이 2천여개소에 설치돼있다.

## 농협, 교육사업 계획 마련

### —올 13만 7천명 대상—

농협중앙회는 올해 교육사업의 목표를 상호이해증진을통한 조합원 의식의 개선및 봉사하는 농협인 양성에 두고 농고생에게 영농정착금 40억원, 새마을청소년회에 육성자금 40억원을 각각 지원하는 한편 13만 7천 5백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협은 교육사업으로 도단위 임직원연수원 3개소(경기·충북·경남)를 신설하여 모두 8개소의 연수원을 확보하고 1만 6천 6백여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외에 농업생산기술교육 3천 3백 22명, 농촌지도자교육 10만 5천 6백 53명, 부녀자농기계훈련

1천명, 영농후계자 교육 1만 9백명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할 계획이다.

농협은 조합원교육에 있어 농협사업이해증진을 통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농업기계화에 대비한 기술훈련을 강화할 방침이며 후보조합원 양성에 있어서는 농고생 1천 6백명에게 2억원, 농고졸업생에게 영농정착금으로 40억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1천 4백 93개 시범 새마을 청소년회를 우선지원키위해 지난해보다 20억 6천 2백만원이 늘어난 40억원을 육성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동물약품 수입둔화

### —작년 축산불황 여파—

작년 한해동안 휘몰아친 축산업의 불황여파를 타고 동물약품수입이 크게 둔화 되었다. 동물약품업계에 의하면 지난해 동물약품 수입

실적은 총 1천 70만달러로 수입한도량 1천 2백 80만달러에 비해 83.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동물약품 수입이 위축된것은 작년 9월이후 극심한 축산업의 불황으로 동물약품의 재고가 누적되었기 때문이다.

## 배합사료 생산량 집계

농수산부는 79년도 배합사료 생산량을 집계 발표하였다. 양계용 배합사료의 경우 전년

대비 24.7%의 생산량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육계의 경우 26.6%, 산란계는 29.4%가 증가되었다.

### ● 축종별배합사료 생산추세 (전체)

년도	양 계 용				양 돈	낙 농	비 육	기 타	계	75기준 증가대비	전년대비 증가비율
	육 추	산 란 계	육 계	소 계							
1975	104,200	371,400	93,000	568,600	135,500	150,700	33,500	12,800	901,000	100	100
1976	173,300	546,400	148,100	867,800	267,100	173,000	43,500	90,100	1,381,526	153.3	153.3
1977	217,089	-	240,561	1,154,924	350,236	26,707	95,528	32,295	1,898,690	210.7	137.4
1978	304,753	882,076	451,725	1,638,554	498,110	320,728	233,088	2,625	2,693,105	298.9	141.8
1979	330,230	1,144,449	571,890	2,043,569	1,129,895	438,512	266,206	12,053	3,880,235	430.7	144.1
전년대비 (79/78)	108.4	129.4	126.6	124.7	226.8	136.7	114.2	78.2	144.1		

## 서울양계기구, 새로운 난좌개발

### - 실용신안 특허 획득 -

부화기전문메이커인 서울양계기구 (대표: 김현배, 전화 372-8302)에서는 금번 새로운 프라스티 난좌를 개발, 시판을 시작했다.

실용신안특허(등록번호: 17265호)를 획득한 동 프라스티난좌의 특징은 통기성(通氣性)이 양호하도록 설계 제작되어 계란보관및 소독효과가 월등하며, 위생적이고 수명이 길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특히 부화장및 종계장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되어 종래의 마스타혼 부화기에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부화장의 입란작업이 흐름 작업화(System화)하여 시간과 인건비를 절감하고 부화장내의 공간효율을 극대화 할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한다.

## 금년말 세계곡물재고 작년보다 3천1백만톤 감소예상

USDA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료에서 1979/80년도 전세계 곡물생산량은 지난해보다 4% 줄어든 13억8,000만톤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여기서 곡물이라 함은 소맥, 사료곡물 그리고 미곡을 말하는바 이와같은 생산감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의 공급량은 작년보다 2%정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이는 지난해 말의 곡물재고가 많았기 때문이다.

한편 금년도 곡류소비량은 작년도의 기록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난년도말의 곡물 재고 수준에서 3,100만톤이 소비로 보충되어 금년회계년도 말의 전세계 곡물재고는 1억9,500만톤이 될 것이며 세계곡물시장에서의 거래량은 작년보다 10%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 농업무역관 개관

— 1월21일 동북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

미국 농무성은 한국에 미국 농산물 시장의 진흥과 확대를 위해 동북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농업무역관(U. S. Agricultural Trade Office)을 지난 1월 21일 개관했다.

세계에서는 5 번째로 극동지역에는 2 번째로 개관된 이번 미국 농업무역관에는 미국대우협회, (A. S. A) 미국우지협회(N. R. A) 및 미국소맥협회(U. S. W. A 사무실을 함께 갖추고 있다.

동무역관장에는 에반스 브라우니 3 세가 취임하였으며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63번지 미국대사관 공보관 (전화72-2601)에 위치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지난해 회계년도 중 14억달러 상당의 농산물을 한국에 수출한바 있으며 이중 옥수수과 밀은 각각 1/5에 해당한다.



개관식장에서 담소하는 이재철 농수산부장관, 그리스틴 주한미대사, 휴즈 미농무성 해외농업국장(우로부터)

## 분유재고 급증

— 비수기 소비둔화로 —

최근 국내 유가 공업계는 주종제품인 시유의 판매가 극히부진,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고있어 분유에 대한 재고금융의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유가공업계는 지난해 11월 이후 소비가 크게둔화, 평균30%이상 생산이 감소되고 있는데 이는 계절적인 비수기를 맞은데다 지난해12월 11일原乳가격(19.1%)의 인상과함께 시유·가공유등 각종유제품 가격이 평균17%가량 올랐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국내유 가공업체들은 남아도는 原乳를 粉乳로처리, 성수기까지 보관할수 밖

에 없는 형편인데 재고량에 대한 자금부담이 가중됨에따라 극심한 자금압박을 면치못하고 있다.

현재 국내 유가공업체들의 총 재고량은 약 1천 5백톤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예년 동기의 적정재고량 4백톤의 3.7배에 달하는 과중한 양이며 이같은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져 오는3월까지의 적정재고량의 9 배에 가까운 3천 5백여톤의 재고가 쌓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분유재고량의 급격한 증가요인은 비수기와가격인상외에도 대용분유의 공급량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데 이같은 유가공업계의 자금압박 과 경영난은原乳대금의 지급연기등 그대로 낙농업계에 전가됨으로써 정부의 낙농진흥시책에도 큰 부작용을 초래할것으로 우려된다.

## 농협단위조합 활성화 화방안 마련

### —3월부터 재무구조, 운영 실태조사—

농수산부는 농협단위조합을 오는 81년까지는 완전 자립화시킬 계획아래 농협활성화 작업에 착수했다.

농수산부당국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전국의 단위조합수는 1천 5백 23개로 3년내에 1천 4백 50개 조합으로 통폐합시킨뒤 81년말까지는 이들 조합을 완전자립시킬 계획으로 경영의 합리화와 함께 사업규모의 확대 출자금 증강운동을 강력히 전개토록하여 자금의 자체 조달 공급능력을 키워나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단위조합의 자립기준은 사업규모가 20억원

이상이고, 자금의 자체공급도도 60% 이상이며, 조합원의 출자액을 6천 5백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작년말 현재 이같은 자립기반을 갖춘 조합수는 6백 50개로서 농수산부는 올해중에 3백 50개, 81년중에 4백 50개 조합을 각각 자립시킬 방침이다.

한편 농수산부 당국은 농협 단위조합의 자립계획에 맞춰 농협활성화 방안을 오는 4월말까지 마련하기위해 3월부터 전국 단위조합을 대상으로 재무구조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농수산부 금년도 젖소도입 억제키로

### —우유소비량 감소 예상—

농수산부는 경기침체, 석유파동등에 따른 소비절약등을 감안, 올해 우유 소비 증대가 어려울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젖소 도입을 억제할 방침이다.

농수산부는 79년도 젖소도입 계획 두수를 당초 3만두로 책정했었으나 유제품 소비가 둔화됨에 따라 2만두로 축소 조정 하였고이중 1만 6천두만이 도입되고 4천두는 금년으로 이월되었는데 금년에도 최근 우유소비가 잘 되지않고 있어 신규 젖소 도입을 지양하고 이월분 4,000두에 대해서는 도입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한다.

한편 유가공업체는 금년도 경기가 불투명한데다 오일쇼크에 따른 소비절약등으로 우

유 소비 신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당국의 젖소 수입억제 정책을 수긍하면서도 신규낙농단지 또는 목장개발 계획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 차관 자금에 의한 젖소 도입은 허용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 서울시 도계유통지역

### 확대 예정

소식통에 의하면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의한 서울지역 도계유통 지역을 현재의 중구 종로구에서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고시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76년 소위 8. 3사태등을 유발, 사회에까지 큰 물의를 일으켰던 도계유통은, 그간 일부 법을 개정 보완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는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중구 종로구만 그간 실시하여 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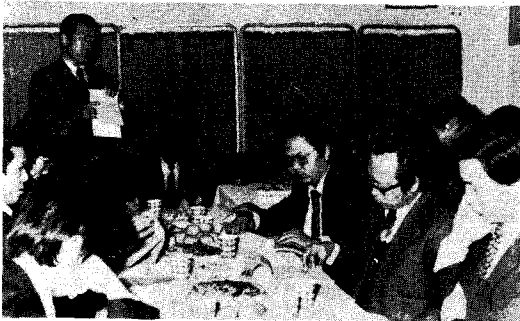
## 한국동물약품협회 정기총회

—감사에 서정범씨 피선—

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최죽송) 1979년도 정기총회가 지난 1월 18일 농수산부 관계관과 25개 회원사 대표가 모인자리에서 개최했다.

동협회 회의실에서 열린이날 총회에서 최죽송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내외 어려운 여건속에 외환율의 인상과 장기화되고 있는 축산불황등 어려운 난국을 지혜와 인내로 헤쳐나가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총회는 79년도 사업보고와 80년도 사업계획, 수지예산(안)심의에 이어 감사에 서정범(세일화학 대표)씨를 추가 선출했다.



## 시중 정육점에 조미료 첨가한 고기 등장

—고객 유치 위해—

고객을 많이 끌기위해 정육점에서 쇠고기에 조미료를 첨가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 보건당국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이는 최근 경찰당국이 쇠고기 맛을 돋우기 위해서 조미료를 첨가하여 팔고있는 정육점을 적발하여 서울시당국에 첨가한 조미료의 인체 유해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 함으로써 밝혀졌다.

서울시 당국자는 한우및 수입육 가운데 고기의 질긴맛을 없애기 위해 인체에 해로운 연화제등을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2~3년 전에 있었지만 맛을 돋우기 위해 쇠고기에 조미료를 첨가하여 판매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적, 조미료나 연화제를 사용한 쇠고기가 시중에 유통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라고 각구청에 시달하였다고 한다.

## 삼양유지사료 제품출하 개시

4 월엔 年産 10만t규모의

대두박공장 준공예정

삼양식품(주)구룡산하 삼양유지사료 (대표: 이병욱)가 지난 12월일산 300t규모의 원주공장 준공에 이어 2월초 부터 본격적인 제품출하를 개시한다.

미국의 우수한 사료업체인 카네션 회사와 기술을 제휴 컴퓨터 자동제어장치등 최신시설을 갖춘 동사는 양계용 6종, 양돈용 7종, 축우용 6종등 배합사료를 생산 판매하게 된다.

한편 동사는 새로운 시장확보를 위해 영업업무를 강화 영업과장에 이보원(전 삼양식품 영업부)씨를, 판매 관리과장에 조종열(전 삼양식품 판매관리부)씨를 각각 발령했다.

또한 오는 4월에 준공되는 년산10만톤 규모의 자체대두박공장이 준공되면 주요원료의 자체확보가 가능하게 된다.

(삼양유지사료 이병욱)



## 食品費중 勞力費비중 점차 커져

—식품비중 $\frac{1}{3}$ 은 농업생산자에게—

美國民이 지불하는 식품비중 3분의 1은 農業生産者에게 그리고 3분의 1은 가공 및 유통부문에 관여하는 勞動者에게 귀속되며 나머지는 노력비를 제외한 가공 및 유통비용이라고 한다.

美農務省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農産 食品의 소비자가격이 오른 주 요인은 가공과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勞力費 상승이라 한다. 이는 임금이 오르는 만큼 노동생산성이 향상되지 못하는데 기인하는 것이다.

농산식품의 가공이나 유통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아직도 비농업분야의 경우보다 낮으나 그동안의 임금상승율은 훨씬 높았다. 즉 1973년 부터 1978년까지 5년 동안의 농산식품 가공 및 유통분야 노임상승율은 연평균 8.4%였는데 반해 비농업 분야의 경우는 7.6%였다.

이렇게 이분야 노임 상승율이 높은 것은 식품가공 및 유통분야 기업주들이 오른 노력비를 쉽게 소비자 가격에 반영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암모니아 處理로

### 아프라톡신(Aflatoxin) 해독가능

—조단백질 함량도 높아져—

미국 미조리 대학 생화학교수 Merle E. Muhrer 박사는 암모니아가 아프라톡신의 효과적인 해독제가 된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아프라톡신은 옥수수수에 기생하는 곰팡이로 부터 발생되는 독소로서 가축에게 암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곰팡이가 발생한 옥수수는 가축사료로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곰팡이가 된 옥수수수에 암모니아를 처리하게 되면 아프라톡신의 독성이 제거되어 가축사료로서도 안전할 뿐만 아니라 사료효율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즉 Muhrer 박사는 같은 연구팀인 Gray L. Johanning 박사와 함께 아프라톡신 옥수수수에 암모니아를 처리한후 반추동물의 제일위에서

뽑아낸 미생물과 guinea pig에 급여하여 그 사료가치를 시험해 본 결과 아프라톡신의 독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암모니아 첨가로 조단백질함량이 높아져 사료효율이 향상된 사실을 발견했다고 한다.

## 동물약품협회 국군장병 위문

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최죽송)는 31개 회원사에서 모금한 정성어린 성금으로 마련한 돼지고기 1천 7백 40kg을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육군제 6026부대 장병에게 전달했다.

동협회의 이번 국군장병위문은 동협회 31개 회원사에서 모금한 2백 1십만원으로 구입한 돼지고기를 전달한 것이다.

## 농수산부, 농축산물 복합가공시설 지원

— 세계은행개발차관 5천만불 도입키로 —

농수산부는 낙후된 농수산물의 저장·가공업  
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농어촌개발공사 식품  
연구소의 기능을 대폭 보강하는 한편 제관공  
업발전과 병행하여 민간의 저장·가공시설확  
충을 위해 IBRD(세계은행)로부터 5천만달

러 규모의 차관도입을 추진중에 있다.

IBRD개발차관은 농개공이 차주가 되어 농  
수산물의 복합가공·육가공시설 등의 확충과  
저장시설 1만3천평 증설등에 용자지원할  
계획이다.

## 축산·원예단지 256 곳 육성

— 농협, 올해 총 1백97억원 지원 —

농협중앙회는 올해 농축산물의 증산을위해  
총 1백97억원을 지원, 축산및 원예단지 2백  
56개소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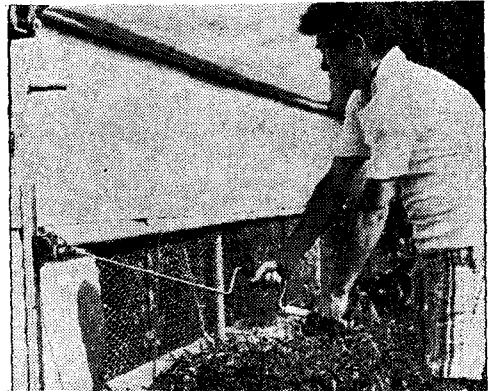
농협중앙회가 마련한 축산원예단지 조성계  
획에 따르면 축산단지는 양돈 74개소, 낙농  
21개소, 산란계 5개소, 육계 4개소, 도입육  
우 2개소 등 1백6개 단지에 98억원을 지  
원, 5개품목 7백여원 어치의 축산물을 생  
산토록 할 계획이고, 원예단지는 과수 1백  
4개소, 채소45개소, 화훼원예단지 1개소등  
1백50개단지에 99억원을 지원, 2만8천ha  
에 과수 6개품목, 채소3개품목, 화훼 1개  
품목등 10개품목을 재배하여 6백80만톤 (1  
천2백여원어치)을 생산토록 할 계획이다.

농협은 축산단지는 경영지도의 강화와 생  
산판매의 일관화를 추진, 성장농축산물 1천  
9백여원어치를 계통출하하고 원예단지의 경  
우 지역특성에 알맞는 품종을 재배하는 것을  
위주로 할 계획이다.

또한 농협은 사료공장 6개소를 증설하여  
배합사료 생산공급량을 지난해의 45만톤에서

52만톤으로 7만톤을 늘리고 품질을 향상시  
켜 성장농축산물의 증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농협은 이밖에 젖소 1천마리와 고기 소  
5천마리 등 6천마리를 도입 입식시키고 부  
우, 배추씨앗 50섬을 공급키로하는 한편 축  
산 원예단지를 중심으로 자재지원, 생산기술  
의 고도화, 선별포장의 개선을 적극추진, 농  
가수취 가격의 제고에 힘쓰기로 했다.



△ 농협은 농축산물 증산을 위해 축산및 원예  
단지 2백56개소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 가축개량사업소 현판식

—축산진흥회, 소45만 8천두에 인공수정—

축산진흥회는 1월 7일 경기도 고양군에 설치한 가축개량사업소 현판식을 갖고 축산물증산, 축산경영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해 가축능력의 조기향상에 주력키로 했다.

축진은 올해가축의 자질을 개량하고 단위

생산성을 높여 경제적인 畜産으로 유도하기 위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모우 1백 2마리를 1백30마리로 늘리고 정액생산도 지난해보다 16%많은 64만 4천 앰플을 생산 45만 8천마리의 소에 인공수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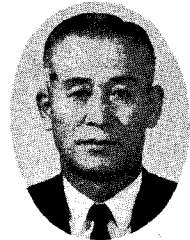
## 한국축산단체연합회 '79정기총회개최

— 회장에 유윤수 전회장 유임 —

한국축산단체연합회는 1979년도 정기총회를 지난 1월 29일 오후 축산회관 2층 당협회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79년도 결산 및 '80년도 예산안검토와 사업계획심의후 열린 임원개선에서는 회장에 유윤수 전회장이 만장일치로 유임 되었으며 부회장에서 한국사료협회장, 대한양계협회장 한국낙농협회장이 피선되었다.

또한 동 회의는 부의 안전심의와 기타토의 사항에서 사단법인 한국단미사료협회 (회장: 윤안민)와 사단법인 한국유가공협회 (회장: 최영규)의 1980년도 신규회원가입 승인



(유윤수 회장)

이 있었다.

## 겨울 농민대학 개최

— 2월 1일부터 전대축산대학에서 —

전국 농업기술자 협회 (총재: 류달영)는 80년 겨울 농민대학을 2월 1일부터 9일까지 전국대학교 축산대학에서 개최한다.

기업농장관리 기술자, 전업농가를 대상으로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전달하기 위해 전기반 (2월 1일~5일)과 후기반 (2월 5일~9일)으로 나뉘 실시되는 이번 영농교실은 축산경영, 채소, 원예, 식량작물, 과수원예, 관상수 등의 반이 개설되어 있다.

동 농민대학은 1965년 부터 개최되어 95기에 걸쳐 1만 2백여명의 수료생을 배출, 영농과학화의 일익을 크게 담당하고 있다.





**대만 농업시찰단 파견**

—FAO한국협회에서 3월부터 예정—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한국협회(협회장: 김보현)는 대만의 농업전반에 걸친 발전상을 시찰하여 우리나라 농업발전에 기여코저 중화민국 농업발전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농업일반(농업행정, 농협, 농업지도, 농지개량), 축산, 수산, 임업등 농업시찰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동협회는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10~15명 단위로 파견단을 구성 각 일주일씩 시찰을 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것은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133-1 FAO 한국협회 전화(73)3171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우유 새공장 건설**

—생산능력 증대위해—

서울우유 협동조합(조합장: 최영규)은 우유생산능력을 대폭늘리기 위해 1백30억원을 투입 강북지역에 신규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동 조합은 80년대의 유제품 수요급증에 대비, 원유처리능력을 1일 1백50톤(현 8시간 기준 80톤)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현 서울시 상봉동 제1공장을 폐쇄하고 새공장을 건설키로 했다.

서울우유 새공장은 울 상반기중 착공, 81년말 완공할 계획인데 공장규모는 대지 1만 5천평, 전평 4천 2백평 규모에 달한다.

**\*세계 주요도시의 축산물 가격\***

1979. 7. 3 현재

(단위: 육류:근당/원, 기타:kg당/원)

구분	쇠고기 (동심)	쇠고기 (어깨)	돼지고기 (동심)	돼지고기 (Roast)	베이컨	닭고기 (전채)	계란 (10개)	버터	마가린	치즈	우유	쌀
본(독일)	2,975	2,264	1,596	1,596	3,105	1,037	508	2,242	830	2,702	221	691
브라질리아(브라질)	876	844	798	1,100	1,814	720	300	1,387	581	2,150	130	240
브라셀(벨지움)	4,113	2,183	1,782	1,809	1,719	1,790	508	2,774	1,166	3,883	331	648
부에노스아이레스(알젠티)	1,097	835	1,074	1,426	2,085	1,099	672	2,798	1,699	4,238	403	696
켄베라(호주)	2,226	1,273	1,526	-	2,339	946	440	1,075	984	1,238	221	389
코펜하겐(덴마크)	5,250	2,278	2,592	2,474	2,549	1,560	724	1,987	1,066	-	278	797
런던(영국)	3,793	1,630	1,434	1,097	1,912	1,075	576	1,570	960	2,016	283	562
멕시코시티(멕시코)	1,155	1,097	991	1,166	-	1,013	268	1,944	869	3,566	134	317
오타와(캐나다)	1,483	1,405	1,247	1,025	916	1,099	352	1,325	1,181	2,227	254	773
파리(불란서)	2,687	1,405	1,613	1,858	2,978	1,843	788	2,328	1,080	2,746	254	715
로마(이탈리)	2,955	2,612	1,567	1,846	1,613	1,330	512	2,198	898	-	269	610
스톡홀름(스웨)	4,383	2,436	2,088	3,784	2,039	1,987	760	1,742	1,373	3,125	245	787
헤이그(화란)	3,456	1,990	1,564	2,235	2,831	1,042	400	2,136	749	-	245	403
동경(일본)	10,282	6,206	2,500	2,647	2,540	1,579	336	3,053	1,258	2,448	461	669
워싱턴(미국)	2,151	1,391	1,518	945	1,074	730	340	1,958	816	2,424	298	446

미사료곡물협회 제공

# 소시지가공업계 진출 활발

## —식품업계, 외국시설도입 활발한 움직임—

연간 1백억원의 좁은국내시장을 놓고 상당수의 식품 업체들이 소시지가공 시설을 증설했거나 이를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소시지 제품의 선발 메이커인 진주햄소시지를 비롯, 대한종합식품, 한국식품, 크라운, 상지등 5개소시지가공 기준메이커 이외에 최근 롯데축산, 제일제당이 신규로 소시지가공에 손을댔으며 이밖에 2~3개 식품관련업체에서 참여를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축산은 스웨덴·일본으로부터 소시지

생산에따른 시설재발주를 이미 끝냈고 제일제당도 연내에 제품을 생산한다는 목표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5개 기준메이커중 대한종합 식품등 일부업체에서도 일본의 육가공업체와의 기술제휴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소시지시설의 증설은 식품 소비패턴의 변화로 인스턴트식품의 대중화 추세가 엿보이고있으며 특히 육제품의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장기적으로 국내시장 전망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 제1회 전국 축산계 대학생

### 학술발표대회및 친선체육대회개최

#### —5월16, 17양일간 건국대학교 축산대학주최로—

건국대학교 축산대학에서는 축산계대학생들의 학구열진작과 친목도모를 위해 제1회 전국 축산계대학생 학술발표대회 및 친선체육대회를 오는 5월16일과 17일 양일간에 걸쳐 동교 학생회관 중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同대회는 전국 각대학의 축산계학과(축산, 축산가공, 낙농, 사료, 축산경영, 수의)재학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데 학술발표범위는 축산학 전문분야의 연구논문과 축산진

흥시책에 관한 방안으로 각대학 학과당 1명씩 발표할 수 있으며 체육대회의 경기종목은 복식테니스와 6인조 배구로서 학과별로 테니스 20명, 배구 6인조 제한된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건국대학교 축산대학내 전국 축산계대학생 학술발표대회 및 친선체육대회 추진위원회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처 ☎ 446-6810(直) 445-0061~70(交)

축산대학 학장실.

## 업계 단신

○ **광일부화장(대표: 강세춘)** : 육용계 로스에 이어 80년 1월부터 산란계 세이버스타 크로스 288을 생산 공급 개시.

○ **이문농산(대표: 이창열)** : 불란서 가물농장으로 부터 판다드를 수입 cc를 생산 사육하고 있는 이문농산은 서울시 중심가에 새로 세워진 백화점 롯데 1번가에 판매점을 개설, 시판하고 있다.

한편 동사는 영국에서 육용오리 P.S를 수입하여 육용오리 cc를 생산 분양하기 시작했는데 7주(50일)령 3kg의 성장의 좋은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한다. 또한 사육자의 원에 따라 수매하여 직접 가공처리하여 시판도 한다고 한다. 자세한 것은 전화(966) 2713으로문의

○ **풍전식품(대표: 이성학)** : 콩을 원료로한 유화제 대두메시친(식품첨가물) 시제품 생산에 성공 양산 시판할 예정

○ **신정일(유일농원영업부장, 본지편집위원)** : 프랑스정부초청으로 International Seminar on farming참석차 지난 1월15일출국, 양계에 관한 시설, 경영, 육종, 시장, 기타등을 연수받고 미국을 경유 3월경 귀국예정



(신 정 일)



(정 진 국)

○ **정진국(오진양행대표)** : 일본 및 미국의 축산기구업체 시찰차 지난 1월 15일 출국

○ **금강축산약품기구상사(대표: 김영부)** : 대전, 충남지역에 가축약품및 기구를 취급, 양축가서비스를 위해 1월 10일 개업(수의사)이상대(주소) 대전시 중구 용두 2동 34-13 ☎(대전) 2-2306

○ **한두교역(대표: 이준택)** :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267-1(경일빌딩501호)로 사무실 이전 ☎(387)3213~5

○ **축산경영사(대표: 장용식)** : 서울시 관악구 신대방동 423-8로 사무실 이전 ☎(832)6274, 7949

○ **한미병아리감별학원(원장: 박종구)** : 관악구 노량진동 200-2(약도참조) 전화(829)6800으로 이전

○ **우성실업<주>(대표: 정인범)** : 1월 13일부터 대전지방 용전전화국 신설에 따라 전화번호 변경 ☎(교환)(7)1101~8 (업무부직통)(7)2601~2

○ **대한신약공업<주>(대표: 김홍기)** : 1월20일부터 전화번호 변경 ☎(34)3352, 3353

◆ **이-글케미칼(대표: 강승조)** : 사세확장에 따른 영업업무 보강을 위해 영업부에 장홍섭(전대축대졸씨), 최관희, 신철웅(중대 축산과졸씨)와 이민구(서울대수의대졸)씨를 신규채용하고 기획부에 조익환(중대 경영과졸)씨를 특채

◆ **한일농원(대표: 차두홍)** : 공식중인상무에 최병현관리부장을, 영업부장에 임옥씨(전 영업부차장)를, 대구사무소 조정필씨를 과장대리로 각각 승진 발령

◆ **월간 종합축산(대표: 김시현)** : 편집부에 김길순(전대 축산과졸)씨를 특채

◆ **축산진흥회** : 기획실장에 김상언씨, 부산사업소장에 장세린씨를 인사 발령

◆ **남성산업(대표: 최인환)** : 영업부에 조성용(전 동신제약 영업부)씨를 기용.